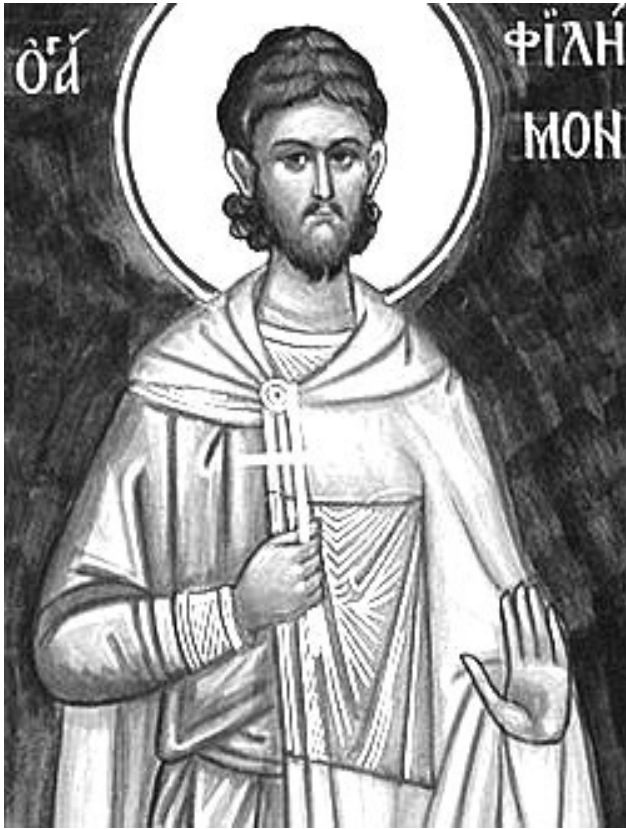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필레몬 순교자

루가 제 11주일 / 주님 선조들의 축일
 에프스트라티오스와 5인 순교자들, 루끼아 순교자
 제 2조, 조과복음 5
 (조과에서 성탄 까따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2조 부활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주님 선조들의 찬양송 / 188, B 209
- 성당 찬양송
- 성탄대림절 시기송 / 208, B 239
- 사도경 : 골로사이 3:4~11 / 봉독서 362
- 복음경 : 루가 14:16~24 마태오 22:14 / 130, B 78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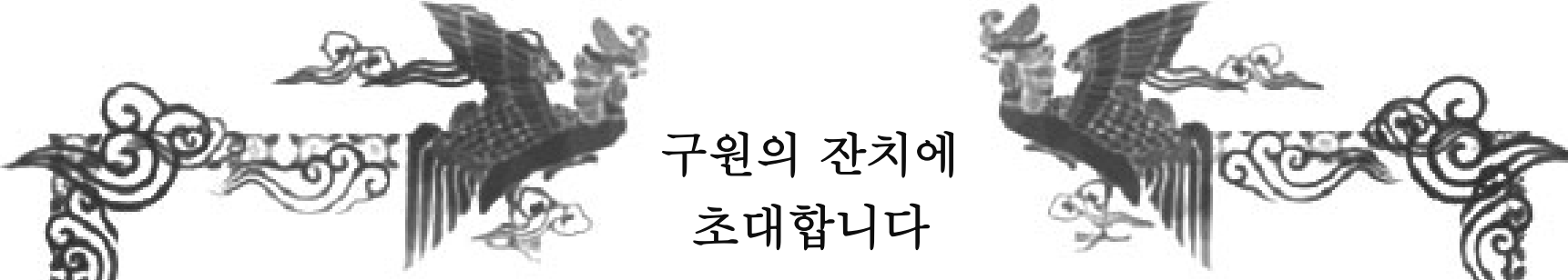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필레몬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자발적 수난에 대해 일러 주셨을 때 열두 제자 중 두 제자가 하나는 영광의 자리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서는 “너희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마르코10:38)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마르코10:39)라고 대답하자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마르코10:39)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난의 쓴

잔과 십자가의 피로 인한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모든 사도들과 많은 성인들이 죽음이라는 순교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순교자들 중에서 몇몇은 순교당할 때까지 세례를 못 받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피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2월 14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필레몬 순교자(3~4세기)도 신앙을 지키며 참수당하면서 자신의 피로 세례를 받은 성인입니다.





구원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신앙을 또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것이 곧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풍성한 은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초대에 응답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충실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일 때문에 영적인 삶이 무시당하거나, 최선이 아닌 차선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영적인 삶이 등한시되거나, 신앙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선이 되어버린다면 그런 신앙 생활은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거나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무슨 일이든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의 이치입니다. 가늠할 수 없이 풍요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네 인생살이에서 주님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을 봉헌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나에게 베풀어지는 은총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며, 또 그것을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에 잠시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베풀어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롭

게 깨닫고 감사할 때 행복한 삶의 길도 열리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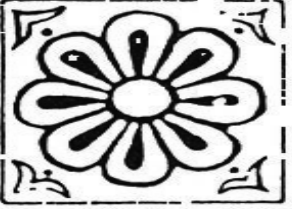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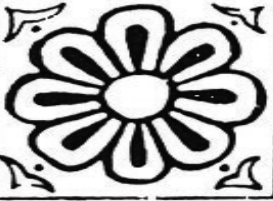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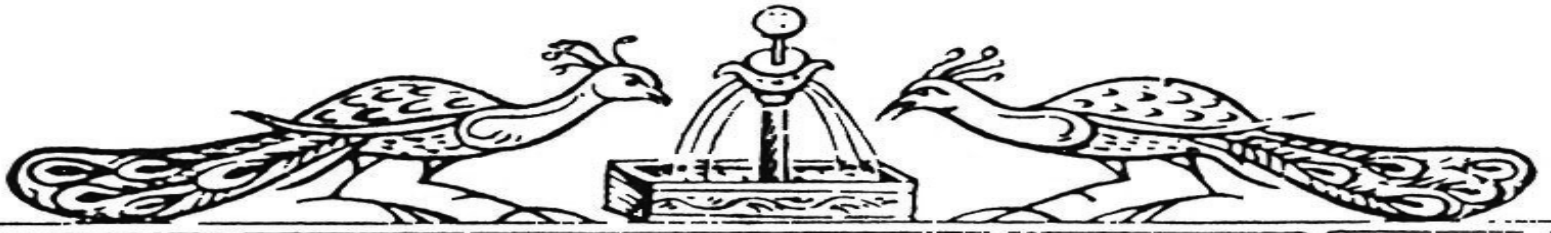
주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바쁘고 일이 많다면 그 삶은 얼마 못 가서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빠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하여서 삶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으로 넘쳐나고, 그 초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구원의 잔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잔치에 참석하려면 합당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나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단련시켜야 합니다. 주님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 알았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원래의 주인이신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하늘나라 잔치에 변명하고 이유를 대면서 가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는 적극적이면서도 확신에 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잔치에 많은 이들이 더불어 기쁘게 참석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기도: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7)



아토스의 꽃들(저자: +모세 수사)에서 발췌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이미 기도가 잠을 많이 자는 것, 폭식(暴食), 수다,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 등에 의해 방해받을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철야예배, 금식, 침묵,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가 더 높이 날아오르는 데 날개가 될 것입니다.



날개 없는 새가 없듯이 밤에 깨어있지 않은 기도의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는 밤은 마치 꽃이 없는 정원, 열매가 없는 나무, 지붕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하느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기도는 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에, 또는 조금 자고난 뒤 밤중에 일어나서, 그리고 이른 아침 해뜨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이 단지 몸의 휴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의 일부를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금식용 식사는 정신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며, 영혼은 깨어있게 합니다. 포만감이 들도록 많이 먹은 사람은 기도를 하기가 어려우며, 마찬가지로 배고파 굶주린 사람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아마도 조금 적게 먹는 것이 기도하는 데는 적절할 것입니다.

침묵은 하느님의 백성을 꾸미는 아름다운 장식입니다. 수다스런 사람은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은 정신을 집중하게 해주며, 영혼이 쉬게 하고,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있게 해줍니다. 단, 외적인 침묵의 목표는 영혼에까지 미치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적인 침묵이 없는 외적인 침묵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인 에프렘 성인(4세기)은 맑고 순수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악마를 몰아낼 것이며, 반면에 신경을 쓰지 않고 부주의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악마가 비웃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12월 17일 축일을 맞이하는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의 신부님과 신자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성 디오니시오스 성인의 중보와 하느님의 은총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면서 성장해나가지길 기원합니다.

대교구

성탄절, 신년, 신현축일 예배 일정

2020년 12월 24일(목)

오전 9:00 ~ 10:30 - 성탄절 대시과

오후 5:00 ~ 7:30 - 9시과, 성탄대축일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2020년 12월 25일(금)

오전 8:45 ~ 10:00 - 성탄대축일 조과

오전 10:00 ~ 11:30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예배

2020년 12월 31일(목)

오후 5:00 ~ 6:00 - 축일 대만과

2021년 1월 1일(금)

오전 8:45 ~ 10:00 - 축일 조과

오전 10:00 ~ 12:00 -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2021년 1월 5일(화)

오전 9:00 ~ 10:30 - 신현축일 대시과

오후 5:00 ~ 7:30 - 신현축일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2021년 1월 6일(수)

오전 8:45 ~ 10:00 - 신현축일 조과

오전 10:00 ~ 11:30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예배

오전 11:30 ~ 12:15 - 신현축일 대성수식

(각 지역성당의 예배시간은 각 지역성당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성 니콜라스 축일예배

하느님의 도움과 니콜라스 성인의 중보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축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5일(토)에는 축일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 예식을 드렸고, 암브로시오스 한국의 대주교께서는 설교말씀에서 의사들이 기적을 행하는 이들이 아니고, 오직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성인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이시며, 성인들은 축일 때 우리들의 기도를 더욱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축일 때 집중해서 성인의 중보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주일) 조과와 성찬예배 때는 정부지침에 따라 한정된 인원만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주교께서는 설교말씀을 통해 니콜라스 성인이 얼마나 위대한 성인인지를 말씀하셨고, 특히 지금 코로나19의 폭풍과 큰 파도의 위협에서 성인이 해상의 인도자로서 보호해주시듯이 우리를 이 위기의 시기에서 보호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예년과 같은 행사와 오찬 없이 신자들은 성당에서 나누어주는 간단한 선물을 받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주간예식

12월 17일(목) 성 다니엘 예언자, 성 디오니시오스 애기나의 주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